

DuPont 과학기술상에 신희섭 교수

칼슘이온 조절과 뇌기능 관계 규명 ... 국내 신경과학 발전 공헌 인정

DuPont이 <제3회 DuPont 과학기술상>의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의 학습·기억현상연구단장인 신희섭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



신희섭 교수

신희섭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인 과학전문 저널인 <Nature> 등에 세계적인 연구논문을 내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펴고 있으며, 특히 뇌기능의 유전학적인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업적을 이루어 국내 신경과학 연구를 발전에 큰 공헌해 온 것을 인정 받았다.

DuPont 과학기술상의 공식 심사를 맡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근모)의 심사위원장 김창효 박사는 “신희섭 교수는 한국의 신경과학 연구에서 많은 중요한 연구 업적을 이루며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특히 칼슘이온 조절과 뇌기능의 관계 규명으로 통증 억제제, 간질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기초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로 평가된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신희섭 교수는 <신경세포 내의 칼슘 농도 조절과 뇌기능의 기준>을 주제로 유전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병리조직학, 전기생리학, 뇌파분석, 행동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는 연구방법과 T-타입의 칼슘이온 통로 유전자가 뇌의 의식·무의식 상태를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규명하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uPont의 나이젤 버든 사장은 “DuPont은 창사 이래 200년 동안 끊임없는 기초과학 연구 및 기술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DuPont 과학기술상>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과학발전에 일조하면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DuPont의 기업철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석 기자>



<화학저널 2004/04/02>